

비만치료 넘어 당뇨·심장까지… GLP-1 ‘만능 대사약’ 진화

일라이 릴리, 파운다요 3상 결과
당뇨병 발생 예측 위험 57% ↓
위고비, 간 지방량 정상 수준 회복
새 적응증 발굴 전략 필요 목소리도

글로벌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가 심혈관 질환 예방, 간 건강 개선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약물로 진화한다. 특히 단일 증상을 표적하기보다 약물 하나로 인체 대사 환경 전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 시간)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각각 자사의 GLP-1 치료제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장기적인 장기 보호 효능, 의로비 절감 효과 등을 제시했다.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 파운다요(성분명: 오폴리프론)는 10년 뒤 발생할 당뇨병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일라이 릴리는 파운다요 임상3상(ATTAIN-1)



비만, 당뇨 등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사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임상 분석에서 파운다요 17.2mg을 72주간 투여한 과제중 및 비만 성인의 10년 내 제2형 당뇨병 발생 예측 위험은 위약군 대비 5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용량에서 예측된 10년 심혈관 질환 위험 또한 위약 대비 약 18.0% 줄었다.

일라이 릴리 측은 “비만 환자들의 큰 우

려한 현재의 체중뿐만 아니라 향후 당뇨나 심장병이 발생할지 여부”라며 “이번 분석은 파운다요가 장기적인 질환 위험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료 시스템의 장기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노보 노디스크의 주사형 GLP-1 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간 질환 영역에서 예방의학적 약물 가치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6 유럽 당뇨병연구학회 연례회의’에서 위고비 임상3b상(STEP UP) 사후 하위 집단 분석 데이터를 공유했다.

당뇨병이 없는 비만 성인 중 간 지방량이 5%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위고비 7.2mg 및 2.4mg 투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2주차 시점에서 투여군의 88.5%가 간 지방 수치 5% 미만의 정상 범주를 회복했다. 평균 간 지방량은 기준선 8.8%에서 72주 만에 3.1%를 달성했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비만 환자 4명 중 3명은 과도한 간 지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결과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심각한 간 질환으로 진행되기 전, 조기에 심장·신장·간 대사 건강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축적하고 있는 GLP-1 계열 약물 데이터는 개별 질환 치료는 물론 만성 질환 관리, 항노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생물학적 기전 규명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역시 이러한 글로벌 연구개발 흐름에 적극 발맞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GLP-1 계열 약물의 진화: 안티-에이징 전략’ 보고서를 통해 시사점을 짚었다.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대사 조절, 염증 억제, 신경 보호, 자가포식 활성화 등에 작용하며 다중 경로를 조절할 수 있음을 집중 조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비만·대사질환 파이프라인이 근감소증, 심혈관, 신장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등 노화 연관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AI 및 멀티오믹스 기술을 GLP-1 연구에 접목해 치료 반응이 우수한 환자군을 선별하고 새로운 적응증을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축적되는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기술 및 산업화로 신속히 연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세계학회서 ‘뷰티 정량화’

AI·딥러닝 접목한 연구성과 발표
‘학회 우수 기초 연구’ 탑 10 선정

아모레퍼시픽이 인공지능(AI)과 딥러닝, 디지털 계측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피부과학 성과를 대거 공개하며 ‘K뷰티테크’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9월 28일~10월 1일(현지 시간) 호주 퍼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화장품 학회 ‘IFSCC 콩그레스 2026’에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성과 9건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피부 변화와 제품 사용 경험을 정량화하는 등 화장품 개발 방식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모레퍼시픽 R&I센터 최은정 연구원은 20여 년간 축적한 ‘열 노화’ 연구에 전사체 분석과 딥러닝을 접목한 성과를 발표했다. 피부 노화 진행과 소재 효능을 정밀하게 예측해 노화로 손상된 피부 구조를 회복시키는 최적화 소재를 발굴했다. 피부장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성과로 평가받아 ‘학회 우수 기초 연구’ 탑 10에 선정됐다.

아모레퍼시픽 R&I센터 이정유 연구원



지난 9월 28일~10월 1일(현지 시간) 호주 퍼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화장품 학회 ‘IFSCC 콩그레스 2026’에서 이정유 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은 제품을 바를 때 일어나는 수분의 이동을 실시간 시각화하고 미세한 전기적 변화를 측정하는 ‘디지털 제형 기술’을 선보였다. 감성 영역에 머물던 화장품의 ‘사용감’과 ‘피부 반응’을 객관적 데이터로 전환해 ‘학회 우수 응용 연구’ 탑 10에 이름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 미주 R&I센터 신진섭 연구원은 브라질·멕시코 소비자에서 더마 코스메틱 제품을 비교 분석했다. 또 인공지능 영상 인터뷰를 진행해 신개념 글로벌 소비자 분석 모델을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 서병희 R&I센터장은 “아모레퍼시픽은 세계화장품학회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피부과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렸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피부과학 연구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를 통해 연구를 예측과 정량화, 데이터 기반 소비자 이해로 확장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피부의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홀리스틱 룰제비티 솔루션’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한미사이언스, ‘프로-감’ 브랜드 강화

‘레티토 에이트 크림’ 출시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약국 전용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프로-감’의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군을 강화하며 K뷰티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미사이언스는 신제품으로 ‘레티토 에이트 크림’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수면 시간 동안 모공, 주름, 탄력 등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관리해 준다. 주로 밤 시간대에 사용하면 된다. 기존 레티놀 대비 피부 자극 부담을 크게 낮춘 차세

대 레티노이드 유도체를 핵심 성분으로 처방했다.

여기에 레티놀 성분 특유의 건조함을 완화하기 위해 판테놀을 결합한 스피쿨, 저분자 히알루론산, 프로폴리스, 마데카소사이드 등을 배합했다. 유효 성분의 흡수력은 높이고 자극은 최소화한 기술도 집약했다.

이와 함께 기존 브랜드 대표 제품인 ‘E GF 액티브 바이탈 크림’은 대용량(50mL)으로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을 갖췄다. 첫 주문 당시

약국의 절반 이상이 재주문할 만큼 피부 진정 효능을 검증받았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대용량 출시로 약국 중심의 재구매 소비자와 K약국 쇼핑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최근 약국가에서 피부과 시술 후 사용하는 애프터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 역시 K미용의료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약국 화장품은 K뷰티 영역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고기능성 제품군을 지속해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G유니참, 탭 팬티형 생리대 국내 첫 출시

바지 안 벗고 생리대 교체 가능

LG유니참이 외출 중이나 야외 활동 시 신발과 바지를 벗어만 교체할 수 있는 팬티형 생리대의 번거로움을 해소한다. LG유니참은 국내 최초 ‘탭 팬티형 생리대’ 쏘피 이지웨어팬티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입는 생리대는 샘 방지 효과가 뛰어나 주로 밤이나 양이 많은 날 사용돼 왔으나 교체하려면 탈의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함이 있다. 쏘피 이지웨어팬티는 허리밴드 양옆에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이지 탭’을 갖춰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간편하게 생리대를 탈착 가능하다.

착용 후에도 탭 부착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개인 체형과 몸 상태에 맞춰 조정하면 된다. 움직임이 많은 경우에도 팬티형 특유의 안심할 수 있는 착용감과 편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쏘피 ‘이지웨어팬티’ /LG유니참

LG유니참은 여성 소비자들의 다양한 일상, 수면 등 생활 방식과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제품을 지속 선보여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유니참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 먼저 출시돼 여행객들 사이에서 소용 필수템으로 입소문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제품 선택 폭을 넓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극건조 피부에 ‘고보습 장벽’

‘딤 베리어 프로’ 5종 선보

동아제약은 메마르고 거친 극건조 피부를 위한 고보습 스킨케어로 ‘딤 베리어 프로’ 5종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들은 큰 일교차와 찬바람으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쉬운 환경기에 활용 가능하다. 전 제품에 판테놀, 시아버터, 알란토인을 조합한 ‘판테놀 오인트 콤플렉스’를 처방했다. 특히 유효 성분을 피부 지질 구조와 유사한 미세 입자로 감싸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동아제약의 지질 나노입자(LNP) 특허 기술을 집약해 흡수율을 대폭 높였다.

대표 제품인 ‘딤 베리어 프로 크림제’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외부 물리적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관리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대조군 대비 1.88배 우수한 피



‘딤 베리어 프로’ /동아제약

부 장벽 개선, 사용 전후 깊은 보습 20.08% 개선 등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피부 건조 정도와 사용 부위에 따라 선택 가능한 ‘로션제’, 핵심 성분을 특수 시트에 담아 집중 공급하는 ‘땀핑 마스크’, ‘핸드 크림제’, ‘딤 겔제’ 등도 출시한다.

/이청하 기자